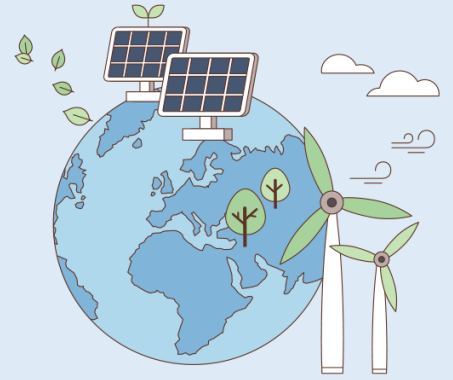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제조기업 10곳 중 4곳 "친환경 신사업 추진" ...ESG 경영 실천 등 이유
이코노뉴스
- SK가스 "친환경사업 다각화로 사회적 가치 창출 꾸준히 증가"
뉴시스
- 환경이 돈이다...황금알 낳는 '그린 비즈니스'
이투데이
- "친환경 유탄유 시장 잡아라" 정유업계, 전기차용 유탄유 경쟁 격화
이데일리
- GS칼텍스, 탄소중립 원유 첫 도입
동아일보
- 친환경 넘어 '必환경'...기업도 착해야 살아남는다
이데일리
- 한화, 산은 손잡고 5년간 5조 투입...친환경 에너지 시장 공략
한국경제
- 신세계인터내셔널, 택배 포장 비닐 99% 감축... "친환경 경영 시동"
뉴스1
- 삼성엔지니어링, 온실가스 감축 본격화... "친환경 사업 박차"
한국경제TV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아빠 회사에 주식 팔아도 특수관계인 아니다" 양도세 중과 취소 결정
매일경제
- 오스템임플란트, 지주사 전환 계획 철회
서울경제
- 동국제강, 지배구조 핵심지표 개선 '속도'
CEO스코어데일리
- '흙슬러' 잡아라... '3조 대어' HMM 누구 품에 안길까
서울신문
- "7월의 보너스 두둑" ...중간배당 공시 '역대 최다'
서울경제
- 상장 추진하는 LG에너지솔루션, 'ESG위원회' 미리 확보
블로터
- '업황호조' LS전선, 13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속내는?
이데일리
- 하이트진로, 지배구조 리스크 추가 발목...시가총액 650억 원 '중발'
글로벌이코노믹
- 신승그룹, 지배 최정점 '지티아이' 수장 '장남-차남'
더벨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광주 철거현장 참사' HDC현산 관계자 등 무더기 경찰 입건
머니투데이
- GS그룹 삼양인터내셔널,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혐의 파문
시사위크
- 상장사 51.8% 여성 임원 고용했지만...사내이사직 한 자릿수 그쳐
뉴데일리경제
- "회생" 쌍용차, '2년 무급휴직·5년 채용중단' 지구안 조인식
매일경제
- 공장 폐쇄-정리해고 대우버스 사태 일단락...울산공장 재가동
연합뉴스
- "여성 인재 키운다" ...하나금융, '하나 웨이브스' 1기 출범식
아시아경제
- 캠프, 2천억원 규모 사회적채권 발행
연합뉴스
- "ESG는 단체인" ...협력사 챙기는 삼성·LG
한국경제
- 배송 지연에 접수집하 중단도...택배노조 파업 영향 확산
매일경제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문 대통령, G7 마지막 회의에서 선도발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상향"
MBC뉴스
- 사학연금, ESG 로드맵 박차...중장기 경영전략 개선한다
연합인포맥스
- 해외대체 늘리는 국민연금, 키워드 '테크·미들마켓'
더벨
- G7, TCFD 공시 의무화 합의 ... TNFD 출범 "자연 보존 중심"
내일신문
- [ESG 인사이트] "ESG 위원회 도입 붓물이나 전문성 미흡...'위성' 주의"
이데일리
- ESG 이슈, 기업 실적과 경영권 혼든다?
그린포스트코리아
- PwC, "향후 5년간 120억달러 투자...ESG 등 가속화"
헤럴드경제
- 싱가포르 최대 은행 회장 "ESG에 막대한 투자금 몰려"
머니투데이
- 경총-상장협-코스닥협, 기업 ESG 정책 지원 힘 합친다
머니S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이사회 내 여성 이사의 현황 및 개선 방향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06.09

E

- 2020년 1월 9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1인 이상 여성이사 선임(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장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 25.9%이며 한국의 여성 이사 비율은 3.3%로 하위권에 속한 일본(9.4%)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
- 한편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여성 이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요구하는 투자 원칙을 공개하였으며 나스닥은 이사회 다양성과 관련된 상장 규정을 채택하여 진행 중임.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법 규제에 따른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운용사, 연기금, 선진국의 거래소 상장 요건 등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부합하여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노력이 기대됨
- 실제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규모의 상장사 내 여성 선임 상장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정기주주총회 가결 기준 대상 기업의 약 51.8%가 개정안 요건을 충족함(2019년 19.9%, 2020년 32.4%)
- 다만 대다수 여성 임원들은 사외이사(감사위원 포함)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의 내부 경영진의 여성 임원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지배주주 일가가 아닌 사내이사는 2021년 기준 NAVER, CJ제일제당, 롯데칠성에서 각 1명이었으며, CJ제일제당의 경우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여성 최초의 내부 승진을 통한 여성 사내이사가 선임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2년 7월까지 국내 약 82개사가 추가적으로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업마다 전문성을 갖춘 여성을 선임하는 것에 애로사항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여 소위 '트로피 이사' 우려가 대두될 수 있기에 기업들은 여성 이사 선임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국내 상장회사의 자사주 활동(2011-2020)과 지배구조 이슈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06.09

S

- 현행 상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을 허용하고 있어 자사주의 활용이 자유로운 편이므로, 자사주 관련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20년 말 유가 및 코스닥 상장회사 기준 지난 10년 간 자사주 취득 및 소각에 참여한 회사 수는 각각 1,418사(65.3%), 88사(4.1%)로 대부분 자사주 취득에 적극적인 반면,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 왔음
- 자사주 취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을 주주에게 환원하여 경영진에 의한 대리인 비용을 낮추고, 당당순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주주 환원의 성격을 띠. 한편 자사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외되므로, 자사주 비율이 높을수록 지배주주가 행사하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커지며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실제로 자사주 비율이 3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자사주 취득 및 보유 과정 관련 잠재적 지배구조 리스크를 살펴본 결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사주를 대량 취득하거나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에서 자사주를 활용하는 등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취득)된 경우가 적지 않음
-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배권은 최대 79.17%에 이르며, 50%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주주가 모두 참석하여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여도 이사선임 등 주주총회 일반결의사항을 지배주주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림
- 따라서 기업이 자사주 활용 계획을 공개하도록 유도 전환하고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자사주가 실질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시 자사주 소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외부 주주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탄소 전환 리스크 프리미엄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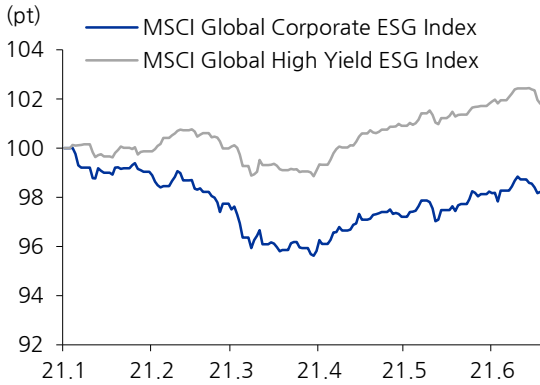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06.09

G

- 탄소 전환 리스크는 짧은 기간 안에 탄소 배출을 크게 감축시켜야 할 때 직면하는 리스크로 정의됨. CEPR은 2005-2018년의 기간 동안 77개국 14,000개 이상 상장사의 기업 탄소 배출량과 재무데이터를 재무 데이터를 이용하여 탄소 프리미엄을 측정함
- 회귀분석 결과, 전세계 대부분의 권역에서 탄소 배출량은 주식수익률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반면 경제적 발전 수준은 프리미엄의 국가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나, 정치 기관의 민주성, 법치, 재생에너지 비중 등의 요인이 높은 국가일수록 탄소 프리미엄이 낮게 나타남
- 파리기후변화협정 이전에는 프리미엄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협정 이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시아 권역에서의 프리미엄 상승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2020-60년까지 탄소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2020년 배출량이 감소한 수치만큼을 매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투자자들이 향후 대규모의 탄소 전환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기업들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과 함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 및 허부기관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요소임.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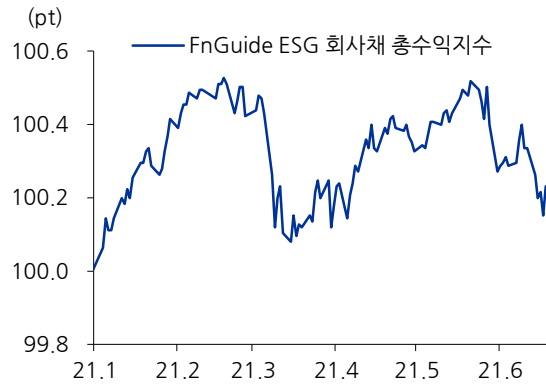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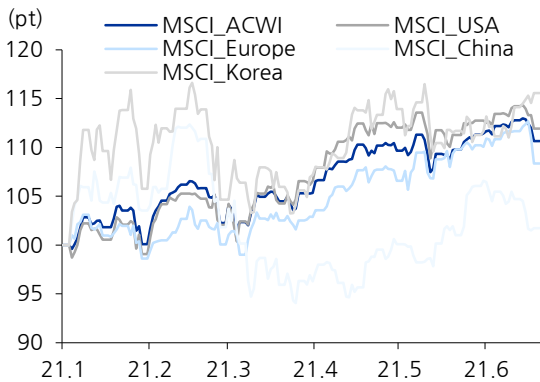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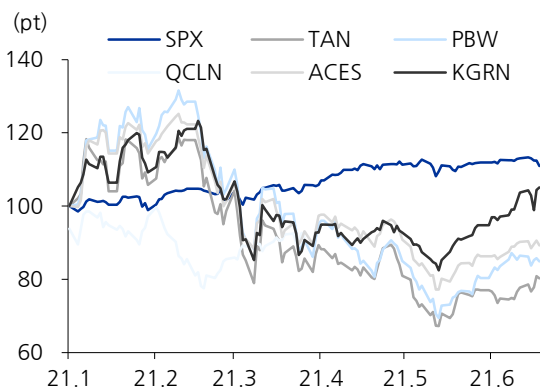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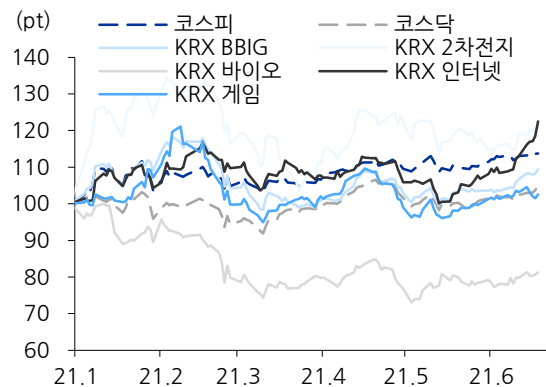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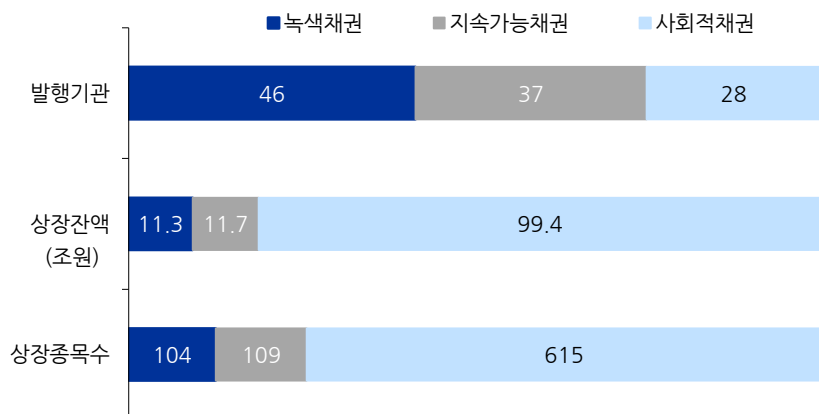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녹색채권	한양 69(녹)	2021/06/18	3.10200	60,000
녹색채권	한화솔루션 275-1(녹)	2021/06/17	1.70400	70,000
녹색채권	한화솔루션 275-2(녹)	2021/06/17	2.05500	30,000
지속가능채권	국민은행조건부(상)4106 이(03)10 후 17(지)	2021/06/17	2.58000	330,000
사회적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채권제 49 회 5006-15(사)	2021/06/16	1.88400	200,000
사회적채권	우리카드 199-1(사)	2021/06/16	1.21200	20,000
사회적채권	우리카드 199-2(사)	2021/06/16	1.51400	40,000
사회적채권	우리카드 199-3(사)	2021/06/16	1.57600	60,000
사회적채권	우리카드 199-4(사)	2021/06/16	2.00500	50,000
지속가능채권	DL 이앤씨 1-2(지)	2021/06/16	2.13900	95,000
지속가능채권	하나은행 조건부자본증권(상)4406 이(후)10갑 14(지)	2021/06/15	2.58000	435,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31(사)	2021/06/15	1.79400	220,000
사회적채권	오케이캐피탈 395-2(사)	2021/06/14	1.92500	25,000
사회적채권	오케이캐피탈 395-3(사)	2021/06/14	2.09100	25,000
사회적채권	우리카드 198-1(사)	2021/06/14	1.21500	40,000
사회적채권	우리카드 198-2(사)	2021/06/14	1.21500	40,000
사회적채권	우리카드 198-3(사)	2021/06/14	1.99100	80,000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성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3.31 기준)